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어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조기교육원·사랑부·에바다부 운영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 사랑 전하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때이다. 한국에는 약 7백만명의 지체부자유자(장애인)가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약 3퍼센트가 기독교인이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교육 훈련을 위하여 주간 학교인 충현장애아동조기교육원을 설립, 특수 교사 14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교회학교 부서에 가운데 사랑부와 에바다부

를 두고 매주일 소정의 주일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1명당 1명의 자원 봉사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 정신으로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으며, 비록 육신의 장애로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건강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정상인들이 고개를 숙일 때가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농아자를 위하여 매주일 3부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를 수화로 동시 통역하

여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로 나선 많은 교사들이 교통 수송, 식사 협력, 교육 보조를 하고 있다.

떠들썩한 행사 위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에서, 충현 성도들은 그들진자,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본받아 조용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돌보아줄 수 있기를 소원한다.

청지기훈련
금주엔 13, 14, 15교구

청지기훈련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다. 지난 주까지 청지기 훈련에 참가한 교구는 12개 교구이며, 모두 1,264명의 성도가 참가하여, 한 교구당 평균 106명이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참가한 성도들은 특강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배가운동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주에는 13, 14, 15교구가 훈련에 들어가는데, 수요일까지 미리 신청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서초경찰서 부활절 예배에서 설교
장학금도 전달

지난 4월 20일 있었던 서초경찰서 부활절 교경 연합예배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 최상규 장로(전도위원장), 박상준 집사(전도위원회 서기), 루디아전도회 회장단이 참석하고, 당회장이 이 예배의 설교를 맡았다.

서초경찰서 직원 및 서초 지역 경찰 및 전경 3백여명과 서초 지역 경목 10명이 함께 참석한



이 예배에서 루디아전도회 회장단이 특송을 하였고, 당회장은

카메라 쏠점



▲ 4월 19일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여 부활의 첫 열매되신 주님을 기념하였다.



▲ "신학과 성경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목회자세미나 제4학기가 지난 4월 20일 종강하였다.

설교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찰들이 부활절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학생들 둔 직원들에게 장학금 백만원을 전달하여 뜻깊은 부활절예배를 드렸다.

살롬경로대학
30일에 야유회

살롬경로대학(학장 신성종 목사)이 오는 4월 30일 한나양로원(경기도 포천 소재)으로 야외학습을 떠난다. 60세 이상 남녀 성도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출발시간은 10시이다.

인도네시아 선교부 방문단
모든 일정 마치고 귀국

서만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방문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출국했던 인도네시아 선교부 방문단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김창수 목사, 이병학 장로, 등 방문단 일

행 24명은 그곳에 머물면서 신학교를 둘러보고 설립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집회에 참석하였다. 특히 당회장은 수요 집회와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을 전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29:14)

충현프리즘

◎...교회 갱신과 목회자 재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목회자세미나 제4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4월 20일 본당에서 있었다.

지난 3월 9일 개강 이래 일곱 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전국의 목회자 750여명이 등록했으며, 본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주제 강의, 그리고 국내 저명 신학자 및 목회자들의 특강으로 매우 수

준급의 세미나였다.

오는 9월 제5학기 개강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종강예배를 드리고, 본 교회 김영삼 장로와 손명순 권사가 마련한 저녁 만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음식을 들며 성도의 교제와 함께 그 동안 공부 피로를 풀기도 했다.

◎...부활 주일을 맞아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 면려회가 마련한 조별 찬양경연대회가 비파와 수금과 함께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13개 조가 각기 특

성과 재주, 그리고 음악성을 발휘하여 상급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울동과 병행된 이날의 찬양은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의 고백처럼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만23세로부터 26세의 황금기 젊은 나이의 이들은 생각도 새로웠고, 패기와 용기가 하늘을 다스릴 듯한 충만감에 순간의 실수가 애교로 웃어넘기는 한마당에 수 사랑 축제였다.

주님의 부활과 맥을 같이 한 생동감 있는 충현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활기 차고 건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주님 부활을 몸소 체험하며 교회예식으로 진행된 제2차 성찬식에 세례교인 7천5백여명이 참가하여 떡과 포도즙을 마셨다.

이 예식에 처음 참가한 한 여학생은 "떡과 포도즙을 처음으로 먹고 마시니 주님과 한 몸이라는 이상아릇한 감회가 서린다."고 고백했다.

그 여학생의 말처럼 우리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마2:1~12)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순한 2천년 전에 태어난 소위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의 생애로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메시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도 좋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사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으며,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야

1 예수님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당시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른 곳에는 없고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으며, 무슨 절기나 행사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그 곳이며 어떤 원수도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촌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며,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들레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홉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롯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며 그들의 증손자인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성이었습니다(삼상16:1; 17:3).

그런데 그들은 장차 메시야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궁금해 하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니까 그야 두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야가 탄생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

경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5)

2 예수님 탄생에 대한 태도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헤롯의 태도를 통해서 첫번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와 함께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헤롯은

정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드디어 나라 전체를 차지하여 전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 되려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칭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 왕들이 중국에 가서 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속국은 아니었지만 금은보화를 갖다 바쳐야 하고 처녀들을 바쳐야 하는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런 것을 아주 잘 했습니다. 헤롯은 많은 물질을 써서 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뇌물을 많이 써서 왕이 되었으니 그 자리를 호락호락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생명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누가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항상 자리잡고 있었고, 자기의 아들들까지 경계했습니다.

헤롯은 예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사장의 딸 미리암네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대신 그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를 제거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미리암네와 장모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마2) 라고 물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우처럼 간교한 헤롯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관집 주인의 태도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돈버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 혈통의 사람이므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그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태도입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2:1, 2)

이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찬송가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라는 데서 추리해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말에 “점성자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천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

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2:11)

동방 박사들에게는 마침내 기쁨이 주어졌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황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은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바르는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을 바르고 장사지냈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은 구세주로서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

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 있으면 별을 보고 왕이 나실 곳을 찾아왔겠습니까. 더욱이 놀라운 것은 말씀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2:9, 10)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때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다시 별이 나타나서 아기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별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 아기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예물입니다. 그 헌금으로 황금을 살 수 있고, 유향을 살 수 있으며, 몰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란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마2:12)

원래 이들은 메시야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면 헤롯왕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2:8).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증오의 태도나, 여관집 주인과 같은 무관심의 태도를 버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날의 가정 생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또한 문제투성이다. 그리스도인이나 그 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후 1년내에 이혼하는 가정이 매년 2천쌍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중년기 결혼 생활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22년간 결혼 생활 후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느낀 사람은 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부부 생활은 신앙 생활의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풍성한 결혼 생활은 셋이서 만들어 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셋이란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이다. 하나님을 이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이다(시127:1).

2 가정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물과 함께 가정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창1:31).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창2:18). "돕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이다. 아내나 남편의 약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따라서 상대가 부족할수록 내가 할 일이 많다는, 차원 높은 단계로까지 성숙되어야 한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충현논단

부부의 균등한 신앙 성장

조동원 목사(고등부 지도)

에 대해 말하고 있다(엡5).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에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마련해 놓으셨다(요10:10).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의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씀 적용 결핍증에 걸려 있으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가 균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고백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3 부부간의 대화 방법

얼마 전 실시한 조사에서 30퍼센트 정도의 부부가 진지한 대화가 없는 무미 건조한 가정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가정 생활은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먼저 부부간의 의사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자. 멀리(잠11:12), 분노(잠12:16), 함부

로 말하는 것(잠12:18), 자기 의사만 들어내는 것(잠18:2),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잠18:13), 조급한 것(잠29:20), 바쁜 것(시간 부족), 텔레비전 시청, 끊임 없는 수다, 비판 의식, 침묵, 다른 식구들과의 갈등 등이 원활한 대화를 막는 요인들이다. 또 금전이나 이성문제, 배우자의 인척, 부모, 친구, 종교, 성격 차이와 같은 것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앞에 열거한 방해 요인들을 살펴보면 말의 실수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온다(마12:35-37).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한다. 우리의 입은 마음의 수도꼭지이다.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없애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가정에 주인이 되신다면 그곳이 바로 "가정 천국"이다.

부부가 대화를 해나갈 때는 절대 비꼬는 말을 삼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말며, 상한 감정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고 있는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고 끝까지 다 듣도록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견을 부드럽게 말하며, 배우자



▲ 새가정부에서는 부부의 균등한 신앙 발전을 지도하고 있다.

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기를 힘쓰며,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원활히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며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화는 들어주고 이해하고 충고하고 보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엡4:2).

4 풍성한 삶을 위한 제언

첫째, 우선 배우자가 자랄 때의 환경, 가정의 독특한 분위기, 취미, 습관, 가치관 등 배우자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내가 먼저 그에게 맞추도록 노력한다.

둘째,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없는 나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사랑의 표현 없이는 진정한 용서나 용납은 있을 수 없다.

"배우자는 이 세상에 유일무

이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이므로 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다.

셋째, 의식적일지라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결혼 기념일, 생일, 연휴, 명절, 휴가 등은 기억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뜻깊게 보낸다.

넷째,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항상 서로 존경하는 삶이 기쁨을 가져다준다.

다섯째,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함께 그 짐을 나누도록 한다.

여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야기시킨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일곱째, 짧은 편지, 무언의 행동 등 표현 방법을 개발하도록 한다.

여덟째,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한다. 어떠한 문제도 이 시간에 모두 해결된다.

아홉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열째, 배우자의 결점이나 단점을 고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배우자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서로 마음만 상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한다.

열한째, 부부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부부는 균등한 성장을 하게 된다.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마련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장로칼럼

신앙 성장과 독서



조선근 장로
(사랑부 부장)

성장은 생명을 전제로 한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장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요일5:11, 12)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장을 무척 중요시 하고 또한 성장을 위한 욕구도 다른 사람보다 매우 크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생물학적인 성장의 개념과는 다르다. 생물학적인 성장은 몸이 자라는(확대하는) 것을 주로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롬8:29)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엡4:13) 그의 인격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것이 얼마나 커졌느냐(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냐(딤후2:20)에 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성장, 장성, 자란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외적 실체나 외적 증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진리(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강조받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생명에 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 이해에 도움되는 독서

또 이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2천여년에 걸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선배들의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이다. '성경' 한 권을 놓고 기독교 역사 2천여년 동안 수백만 권이 저술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책들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저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깊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의 본질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종에 이르는 기독교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형 서점이 서울에만도 10여곳이 된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도 꽤 많은 기독교 서적들과 만날 수 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애쓰며 기도하며, 게스스럽게 다른 책들을 뒤지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과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두며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신앙 성장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리는 무단히 추구하는 자에게 보여지고(잠2:4, 5), 이처럼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할 때 우리 삶에 옮길 수 있고, 우리 삶에 옮겨질 때 진정한 인격의 변화, 진정한 성장이 있다.

신앙 성장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하루에 단 한 장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조차 짐이 된다면 말씀 공부에 게을리 하고 망설인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다음호 칼럼은 정광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방문

인도네시아 선교부의 비전

김창수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지도)

지난 4월 13일 정오, 충현교회 인도네시아 선교부 방문단을 실은 비행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것은 충현 선교 20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선교지역을 개인적으로 몇몇 분이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교회적인 방문단이 조직되어 선교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서만수 선교사가 충현교회의 후원을 받아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은 때는 1970년 9월 28일이었다. 그 동안 서 선교사는 1972년 7월 2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선교의 기지를 구축한 후 65개의 오지 지역 교회를 개척해왔다.

이번에 방문단은 자카르타에서 비교적 가까운 개척 교회 몇

곳을 가서 살펴보고 격려도 해주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교회는 61번 칠린칭(Cilincing) 교회였는데, 1990년에 한인연합교회 남선교회가 개척하여 벌써 2백여명의 교인이 모이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우리가 이어 살펴본 56번 풀로가둥(Pulogadung) 교회도 1988년에 시작된 이래 매우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의 하나였다.

서 선교사는 오지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찬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에도 주력해왔다. 사역

초기에는 오지 촌락 순회 집회와 교역자 세미나를 중심으로 사역해오다가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한 1개의 중



합대학교와 1개의 사범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동역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교의 열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 신학교를 설립할 필요성

이 대두되어 임마누엘신학교가 지난 1991년 9월 2일 개교하였다.

방문단은 신학교 부지로 예정된 6천평의 광활한 대지를 둘러보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용도 허락을 받고 계약 체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그곳의 지원이 없이 건립된 신학교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배출되어 전국의 오지들로 나가 사역하게 될 미래의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방문단의 가슴은 설레기만 하였다.

당회장님을 모시고 3일 예배로 모인 집회에서는 방문단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 특히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상의 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메시지는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그 이튿날에는 한인교회 연합 조

찬기도회와 아울러 그곳 비디오 성서대학생들과 함께 신성중 목사의 특강을 듣고 성경 연구의 오묘함을 유감없이 맛보기도 했다.

방문단은 한인 교회 성도들과 격의 없는 친교를 나누며 타국원방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선교사의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그들의 끈끈한 모습을 보고 진한 감동을 느꼈다. 아울러 서 선교사의 사역으로 믿게 된 원주민들의 눈동자에는 복음으로 새로워져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저들을 향한 형제애가 솟아오름을 금할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선교부는 우리 교회 세계 선교의 이름답게 핀 꽃이다. 선교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부를 뒤로 하면서 충현교회와의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며, 아울러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와 선교본부의 더 많은 기도과 지원이 절실함을 마음에 담고, 특별한 포옹을 나눌 때 방문단과 서 선교사의 눈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뻘을 적셨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회장 서주식 장로)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린다. 따라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서주식 장로가, 기도는 임현

재 장로(부회장)가, 성경 봉독은 최상규 장로(부회장)가, 광고는 고정백 장로(총무)가, 설교는 노회 서기인 고영민 목사가 각각 담당하며,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특송을 한다.

새가족부·세례부 찬송가부르기대회 오늘 개최

새가족부(부장 오정현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와 세례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홍창민 목사)는 오늘 집회 시간에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 찬송가부르기대회는 초신자들이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초신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관섭 피택장으로 한국교회음악협회 회장으로 피선



이관섭 피택장로가 최근 아현감리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교회음악협회 제39차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5월 금요특별기도회 간증자

일시	성명	소개
1일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가중창단
8일	송혜전 집사	광석교회 집사
15일	문오장 목사	온누리교회 시무

언제나 교회로 인도할 대상을 찾아오던 중 지난 해에는 33년 전 아담한 키에 당차게 생긴 여고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어느날 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변모되었을까 하는 기대와 보고픈 생각을 억제하면서 지난 해를 넘겼다. 지난 2월이다. 이제는 대어를 낚을 수 있다는 뿌듯한 감격과 기대 속에 전화를 걸게 되었다. 다만 마음 한 구석에 독자의 글

있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 여학생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의 언니가 그곳에 몇 차례 다녀가곤 하여 그 집의 다른 가족들과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 그 사람이라고 했다. 옛날 일들을 이야기하니 금방 기억해냈다. 지금은 국민학교 교사이며 두 고등학생의 어머니로 남편과는 사별하였다고 했다. 전화로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웁지, 어미 고기만 낚으면 새끼 고기는 거저 따라오게 되겠군.' 하면서 내심 기뻐하였다.

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렇게 버리고 고대하던 대어를 낚아내는 기쁨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허탈감과, 그러나 전도대상자로 작정하였던 사람이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감격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가브리엘찬양대원으로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내 아내와는 이

잃은 허탈감 - 얻은 기쁨

정정주 집사(제14교구)

내키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의 가정이 가톨릭 집안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잉태된 아이는 때가 되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이제는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립한 후 전화를 걸게 되었다.

"여보세요, 〇〇씨 맥이죠?"
"네, 전대요."
누구라면 선뜻 잘 모를 것 같아서 33년 전으로 잠시 되돌렸다. 존 오나메커의 자서전 영향으로 사업가의 탄탄한 기초를 쌓아올리기 위하여 어른의 소개로 대전 어느 도매상에서 무보수 점원으로 연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목적인 바를 이루려고 본론적인 대화를 꺼내었다. 요즘은 교회는 나가느냐고 물었다. 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가톨릭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각오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근처의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크고 작은 교회가 하도 많은 터인지라 무슨 교회냐고 물어보았더니 충현교회라고 하였다. 혹시 같은 이름의 교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디에 있는 충현교회냐고 다시 물어보았더니, 김창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라고 하였다. "아이고!" 그때의 실망을 어

미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이었다. 이제는 대어를 낚는다는 꿈도, 기대도 사라졌지만, 성숙한 성도로서, 아니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은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이 그 집사와 자녀에게 더욱 크게 임할 것을 고대한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식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눈을 크게 뜨고 또 다른 전도대상자를 찾아 잉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아름답게 출산할 날을 고대한다.